

#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연구에 날개를 달았다

지난 99년 9월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이 공식적으로 개원한 이후  
연구원은 5억여원에 달하는 정부의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배경 그리고 연구원의 연구현황과 사업계획에 대해 살펴본다.



취재 ·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 연구원 설립 취지 및 배경

1977년부터 실시한 의료보험 저수가정책으로 인한 치과병·의원의 열악한 경영상태와 21세기의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경영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치과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강보건 및 치과의료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치협외 정책개발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의사들의 경우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대학연구기관 및 병·의협 자체연구원 등을 통해 그들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치과계의 경우 그러한 연구기관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제 21세기를 맞아 치과 의사의 정책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연구원의 설립은 한국의 치과의료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원의 연구 영역 현황

연구원에서는 치과계 초유 최대규모의 구강보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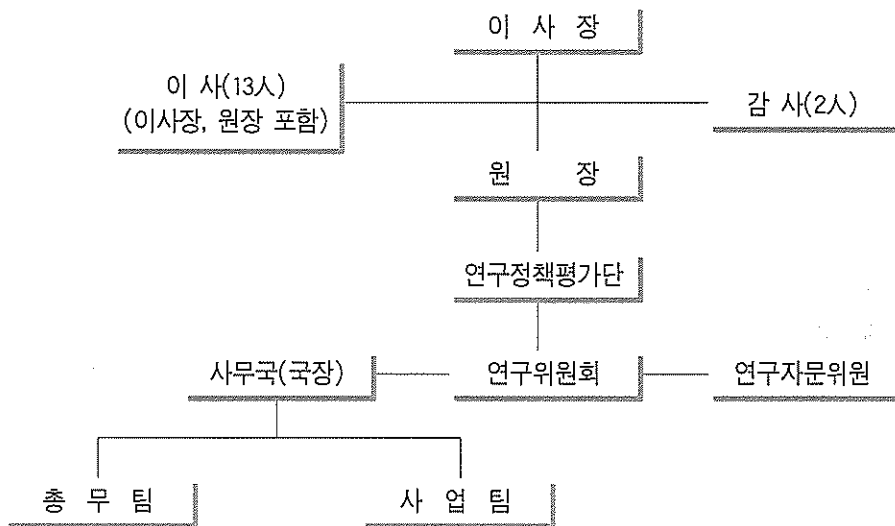
태조사 사업을 실시중에 있다. '2000년도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 사업은 연구원이 정부의 용역을 받아 대한구강보건학회에 위탁실시하는 것으로서 4억9천5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구강건강은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국가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국민구강보건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연구원에서는 '21세기 치과계 발전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와 '치과요양비용계약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해 결과를 도출해냈다.

'21세기 치과계 발전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에서는 치과계나 의료계 및 사회 전반의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거나 치과계의 발전전략이 필요한 분야로서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연구원이 수행할 향후 연구과제 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미래의 연구과제 개발에 대한 모델을

## 기구표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계 발전과 미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의료보험 및 치과의사 리더십 개발에 필요한 연구 과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과제 △국민의 구강건강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과제 △치과계 인력의 질적 양적 관리 및 신기술 관리에 필요한 연구과제로 분류해 제시했다.

'치과요양비용계약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요양비용계약제(수가계약제)가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 및 영향에 관한 논의와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보고 치과부문에서 바람직한 요양급여비용계약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공함으로써 치과부문이 어떤 준비를 통해 치과의료보험 및 치과의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지 제시했다.

## 연구원의 사업계획

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괄적인 사업을 실시한다. △구강보건 및 치과의료 정책과 제도의 연구개발과 지원 △구강보건사업과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연구와 홍보 △구강건강실태, 구강건강행태, 치과의료 이용에 관한 조사와 연구 △구강보건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구강보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치과의료기관의 경영관리에 관한 연구 △치과의료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구강보건의료 정보

체계의 구축과 관리 △민족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구강보건 의료제도에 관한 연구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기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책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등이다.

2000년도 사업계획은 '치과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개발과 구강진료전달체계 개발 및 전문치과의제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해 △현행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를 규정하고 △현행 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의료기관 종류 재분류, 이에 따른 종별 표준업무를 규정하며 △기존의 종별가산율은 시설규모에 따라 구분하였으나 기술수준, 업무난이도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을 두어 가산을 설정기준으로 활용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재확립한다.

현재의 일반 의료전달체계가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3차로 구분되어 있으나, 구강진료 전달체계에 대한 치과계의 합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고, 진료전달체계의 확립시 각 전문분야별 전문치과의사의 수요도 예측된 적이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발과 전문치과의제도가 실시될시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원은 또한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위원회별 연구용역을 연구원으로 흡수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앞으로 연구원에서는 각계 요로에 연구원을 홍보하여 치과계의 위상을 높이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사업을 수주하여 연구원의 연구실적을 배가키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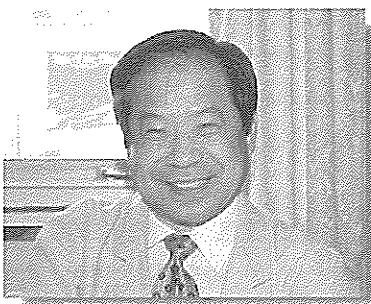
## 임원

- 이사장 : 이기택
- 원 장 : 이재현
- 이 사 : 권종진, 김영환, 김지학, 서영수, 오대규, 전현희, 조영수, 조영식, 조효제, 한영철, 현기용
- 감 사 : 유동수, 이종률
- 평가단 : 서영수, 문혁수, 이종찬, 조영식, 신승철, 김경남, 박영국, 권호근, 최규옥
- 비상임연구위원 : 김명기, 박덕영, 김진범, 장기완, 송근배, 김동기, 육종인, 이홍수
- 상근연구위원 : 명재일

## 연구원 연혁

- 99. 4. 17 치과의료관리연구원 사업비(일반회계) 승인(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
- 99. 8. 10 구강보건의료연구원 규정제정 및 연구원장 선임
- 99. 9. 15 구강보건의료연구원 개원 현판식
- 99. 10. 12 일반회계 치과의료관리연구원 사업비를 연구원 별도회계로 계리보고(제6회 정기이사회)
- 99. 11. 9 구강보건의료연구원 별도회계 설치승인(제7회 정기이사회)
- 2000. 1. 11 구강보건의료연구원 독립 재단법인화 추진결정(제9회 정기이사회)
- 2000. 2. 8 재단법인화에 따른 기본재산 출연 결정(제10회 정기이사회)
- 2000. 3. 8 구강보건의료연구원 감사
- 2000. 4. 22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법인설립 승인(제 49차 정기대의원 총회)
- 2000. 5. 2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법인화 발기인 총회 개최
- 2000. 5. 24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법인화 신청
- 2000. 5. 29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재단법인 인가(보건복지부)
- 2000. 6. 9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설립등기 완료(법원)
- 2000. 6. 10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사업자등록 인가(세무서)
- 2000. 6. 29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 연구용역 계약체결(보건복지부)
- 2000. 7. 12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초도이사회 개최

## 인터뷰



이재현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장

**치과계 비전 제시하는 기관으로**

**공정성과, 공평성 확립**

**예산 확보로 사업확대**

**연구원의 원장취임 후 9월이 되면 1년이 된다. 그간 많은 사업을 해왔는데 구보연을 운영하면서 주력한 것은 무엇인가?**

우선 처음에는 독립법인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학술단체로서 치과계의 각종 현안문제와 정책사업을 협회 임원이나 치과의사만으로 추진하고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와 관계를 맺고 위촉하는 등 다방면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법인화가 되면 정부 및 공공분야에 책정돼 있는 연구용역사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협회 및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평가로 인한 대외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구원의 위상도 제고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운영결과에 대해 만족하는가?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미흡하다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 또한 만족할 만한 사업은?**

무엇보다도 보람있는 것은 이번에 치과계 초유의 구강보건 실태조사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는 점이다. 예산만 해도 4억9천5백여만원이 소요되며 이 예산은 모두 정부지원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00년 8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초중고 학생층 1만여명과 그의 연령층 1만여명 등 모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기존의 구강보건 실태조사와 다른 점은 국제기준을 적용하므로 OECD나 WHO에서도 그 사업결과를 인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건행정 역사에 의미있는 일로 남을 것이다.

이번 사업은 협회와 연구원과 복지부의 구강보건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얻어낸 것으로써 앞으로도 서로의 윈윈전략에 의한 연구활동에 힘쓸 것이다.

연구원에서 보강해야 할 부분이 상임연구원의 증원 문제이다. 현재 1인의 상임연구원이 있지만 다른 연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연구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임연구원의 보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만큼 연구담당자를 선정하거나 연구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운영방안은?**

연구과제 담당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치의신보 등 기관지에 공고를 하여 관심있는 사람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공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연구금액에 대한 합리성에 대해서는 연구원내에 있는 평가단에서 평가를 하게 되며 신청한 금액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 줄이기도 한다.

또한 평가단에서는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의 문제다. 예산이 늘어나야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

**엇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산이다. 예산의 규모에 따라 연구가 활발해지느냐 위축되느냐도 사실이다. 이번에 5억여원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 실시하게 되는 위탁사업은 의미있는 것이다. 연구원이 독립적인 재단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연구원에서는 자체적인 예산만으로 확충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비를 획득할 수 있는 기관, 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의 용역을 확보해 치과계 연구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사업을 하고 있는 어느 단체이든지 비전이 없는 단체는 미래가 없다고 한다. 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 비전은 무엇인가?**

21세기에는 치과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치과계가 선진 치과계가 이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또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걸맞게 회원에게 정보와 지식을 전해주는 연장교육에 대한 실시도 고려중에 있다.

**연구원의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회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연구원에서는 우선 단기적인 사업으로서 개원기념 학술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며 세미나의 내용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주테마로 할 계획이다.

치협에서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정책사안에 대해 연구를 실시해왔으나 3년마다 임원진이 교체됨으로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누수현상을 극복해 연구원에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가능케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치과병의원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21세기의 바람직한 치과경영 모델을 제시하고 치과의원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사업을 구상중이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겠으나 회원의 많은 관심과 독려를 부탁한다.